

(가) **간 봄** 그리워함에
모든 것이 서러워 **시름**하는데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얼굴이 주름살을 지으려 하옵니다
㉠눈 돌이킬 사이에나마
만나 뵈도록 하리이다
낭이여 그리운 마음의 가는 길이
㉡다북쪽 우거진 마을에 잘 밤이 있으리이까

- 득오, 「모죽지랑가」

(나) 전각이 깊고 엄숙한데 신하가 앞에 있어
임금을 위해서 화왕가를 노래했네
화왕이 봄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
진홍색 연자색 꽃이 가지마다 분분했소
싱긋 한번 웃음에 온갖 교태 생겨나니
㉢임금의 마음이 쉬이 잘못될까 염려했소
누가 알리오 **골짜 속의 머리 허연 백두옹**이
노성한* 군자와 같은 부류인 것을
봄이 와 온갖 잡초에 함께 뒤덮여서
천거할 길이 없으니 그것을 어이하오
㉣나라를 이룰지 **엎을지**를 일찍 구별해야 하니
색황*이 어찌 현인을 가까이하는 것만 하리오
이 한마디에 미혹 풀린 신라의 임금이
계림*을 풍동*시켜 대화를 이루었네
산과 들을 다 다녀 꽃향기를 모으니
㉤난손과 두약*이 **뻑뻑**하게 늘어섰네
홀룡해라 당시의 **설총** 스승이여
보물 피리 소리에 온갖 **풍파**가 멎었구나

- 이익, 「화왕가」

*노성한: 많은 경험을 쌓아 세상일에 익숙한.
*색황: 여색에 빠져 타락함.
*계림: 신라의 다른 이름.
*풍동: 백성들이 스스로 좇아서 감화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난손과 두약: 난초와 향초의 한 종류.

1. 25001-0028

-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인격을 부여한 자연물과 인간의 속성을 대조하여 애상감을 환기하고 있다.
 - ②화자가 이동하는 공간에 따른 배경 묘사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전환하고 있다.
 - ③영탄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시적 대상인 주요 인물을 명료하게 부각하고 있다.
 - ④화자가 과거에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건의 장면을 회상하여 후회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⑤자연물의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화자의 변화하는 심경을 보여 주고 있다.

2.

-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잠시라도 낭과 만나고 싶은 화자의 간절함을 드러낸다.
 - ② ㉡: 낭과의 재회를 체념한 화자가 위로를 느끼는 공간이다.
 - ③ ㉢: 임금이 미혹될 것을 걱정하는 충성의 태도가 나타난다.
 - ④ ㉣: 선택된 인물에 따라 달라지는 나라의 운명을 의미한다.
 - ⑤ ㉤: 조정에 인재들이 모인 상황을 비유하여 그린 모습이다.

3.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죽지랑가」는 고매한 인격을 갖추었던 화랑인 죽지랑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노래한 향가 작품이고, 「화왕가」는 신문왕에게 간언한 설총의 설화 「화왕계」를 모티프로 삼아 그 내용을 한시로 변용하여 설총을 칭송한 작품이다. 문학 작품에서 역사적 인물을 동원할 때는 그 인물이 처했던 당시의 역사적 위기나 부정적 현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드러내려는 의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과거의 고매한 역사적 인물은 쇠락했거나 부재하여, 화려했던 과거와 대비되어 실의와 탄식을 자아내게 만들지만, 현재의 문제적 상황을 들추어낼 뿐 아니라 이를 극복할 힘과 소망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 ① (가)의 화자는 ‘낭’을 만나지 못해 ‘시름’ 속에 고통스러워하면서 낭과 재회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부정적인 현실을 견뎌 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군.
- ② (가)에서 역사적 인물인 죽지랑은 과거의 젊었던 시절인 ‘간 봄’에 지녔던 아름다운 모습과 대비되는 ‘얼굴이 주름살을 지으려’ 하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군.
- ③ (나)의 화자는 신라가 겪었던 역사적 위기를 ‘온갖 풍파’로, 그것을 막아 낸 역사적 인물로서 설총의 역할을 ‘보물 피리 소리’에 비유하여 그 업적을 칭송하고 있군.
- ④ (나)에서 고매한 역사적 인물은 ‘골짜 속의 머리 허연 백두옹’이라는 쇠락한 모습으로 나타나 ‘진홍색 연자색 꽃’으로 형상화된 과거의 화려했던 모습과 대비를 이루고 있군.
- ⑤ (가)의 화자는 ‘낭’과 같은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가 필요한 현실 상황을, (나)의 화자는 임금에게 ‘이 한마디’의 간언을 해 줄 ‘설총’과 같은 인물이 필요한 문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군.

(가) 내 입을 그리워해 우니나니
산(山) 접동새 난 이숫하요이다*
아니며 거짓인 줄 아으
잔월효성(殘月曉星)*이 아시리이다
넋이라도 입과 한곳으로 가고 싶어라 아으
우기던 이 누구였습니까
과(過)도 허물도 천만 없소이다
무리들의 말이랍니다
슬프도다 아으
입이 나를 하마 잊으셨나이까
아아 입아 돌이켜 들어서 사랑해 주소서
- 정서, 「정과정곡」

*이숫하요이다: 비슷합니다. *잔월효성: 새벽녘의 달과 별.

(나) 거미야, 부탁하고 부탁하노니
앞길에 거미줄을 쳐 두었다가
나를 등지고 날아가는 꽃 위의 저 나비
거미줄에 걸리게 해 제 허물을 뉘우치게 해 다오
- 민사평, 「소악부」 중 <제6장>

4. 25001-023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접하게 된 사물을 통해 내적 갈등의 해소를 드러내고 있다.

② (나)는 시어의 대비를 통해 이별의 상황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보여 주고 있다.

③ (가)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나)는 문답의 형식을 사용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비판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④ (가)와 (나) 모두,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세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⑤ (가)와 (나) 모두,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시적 상황에서 비롯된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5.

<보기 1>을 바탕으로 (가)와 <보기 2>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과정곡」은 고려 시대의 문인 정서가 유배 생활을 할 때 지은 노래이다. <보기 2>는 고려 말에 이제현이 이 노래의 뜻을 풀어 한시로 쓴 작품이고, (가)는 조선 전기에 『악학궤범』을 편찬하면서 당시에 전해지던 「정과정곡」을 한글로 기록해 수록한 것이다.

매일같이 입 생각에 옷깃이 젖어
흙사 봄산에 접동새 같네
웁고 그릇됨을 묻지를 마오
응당 잔월효성은 알리라

- ① (가)와 달리, <보기 2>는 계절감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 사용된다.
- ② <보기 2>와 달리, (가)는 입의 사랑을 되돌리고자 하는 화자의 바람이 직접적으로 표현된다.
- ③ (가)에서 화자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은 <보기 2>에서 간결하게 축약되어 제시된다.
- ④ (가)는 물음의 방식으로, <보기 2>는 명령적 어조로 자신을 잊은 입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부각한다.
- ⑤ (가)와 <보기 2>는 모두, 입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모습을 작품의 서두에 제시하는 구성 방식이 사용된다.

6.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연물은 문학의 주된 소재로서 주제의 형상화에 다양하게 사용된다. 가령 자연물과 인간 사이의 유사성에 착안하여 인물의 정서나 처지를 드러내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자연물과 인간을 대비하여 인간에게 결여된 능력이나 덕성을 지닌 존재로 자연물이 제시되기도 한다. 또는 시적 상황이나 대상, 그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우의적으로 형상화할 때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기도 한다. (가)와 (나)는 이별의 상황에서 비롯한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자연물을 소재로 활용해 효과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 ① (가)의 ‘산 접동새 난 이숫하요이다’에서 자연물과 인간 사이의 유사성에 착안하여 ‘접동새’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가)의 ‘우기던 이 누구였습니까’와 ‘잔월효성이 아시리이다’에서 인간과 대비되어 웅고 그림을 알아줄 존재로 ‘잔월효성’이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나)의 ‘거미’에게 ‘제 허물을 뉘우치게 해’ 달라고 하는 것에서 ‘거미’에게 부탁하는 말을 통해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나)의 ‘꽃’ 위에 ‘나비’가 있다고 하는 것에서 입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화자의 모습을 ‘꽃’에 빗대어 우의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나)의 ‘나비’가 ‘나를 등지고 날아’ 간다고 하는 것에서 ‘나비’가 화자와 이별한 입을 우의적으로 표현하는 소재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군.

(가) 귀거래* 귀거래 말뿐이오 ㉠갈 이 없어
전원이 장무(將蕪)*하니 아니 가고 어쩔고
초당에 청풍명월이 나명 들명 기다리나니

- 이현보

*귀거래: 돌아가리라. 중국의 시인 도연명이 지은 시의 한 구절.
*장무: 바야흐로 거칠어져 감.

(나) 강산 좋은 경을 ㉡힘센 이 다들 양이면
내 힘과 내 분으로 어이하여 얻을쏘니
진실로 ㉢금할 이 없을새 나도 두고 노니노라

- 김전택

(다) 공명을 헤아리니 영육이 반이로다
동문에 쾌관하고* 전려*에 돌아와서 성경현전* 헤쳐 놓고
읽기를 파한 후에 앞내에 살진 고기도 낚고 뒷뎨에 엄긴* 약도
캐다가 임고원망*하여 임의소요*하니 청풍이 시지하고* 명월이
자래하니 아지 못게라 천양지간에 이같이 즐거움을 무엇으로
대할쏘니

평생에 이리저리 즐기다가 노사태평(老死太平)하여 승화귀
진*하면 그 좋은가 하노라

- 작자 미상

*쾌관하고: 동쪽 성문에 관을 벗어 걸고, 벼슬을 그만두고.
*전려: 농사를 짓기 위해 임시로 들에 지은 집. 시골.
*성경현전: 성현들이 지은 훌륭한 책들.
*엄긴: 짝이 길게 자란.
*임고원망: 높은 곳에 올라 먼 곳을 바라보는 것.
*임의소요: 마음 내키는 대로 거니는 것.
*시지하고: 때마침 불고.
*승화귀진: 자연에 순응하여 살다가 생명을 다할 때 자연의 귀결에 맡기는 것.

7. 25001-023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말로만 의지를 드러내는 사람과 대비된다.
- ② ㉡에 대해 화자는 자신과 닮은 상황을 가정한다.
- ③ ㉢은 화자가 즐거움을 누리는 데 방해가 되는 대상이다.
- ④ ㉠과 ㉡은 모두 화자가 만남을 기대하는 대상이다.
- ⑤ ㉠과 ㉢은 모두 화자가 부재한다고 인식하는 대상이다.

8.

(다)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명을 헤아리니 영육이 반’이라는 것은 미래 상황에 대한 화자의 낙관적 전망을 드러낸다.
- ② ‘동문에 쾌관’ 한다는 것은 화자가 현재의 상황에 대해 후회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③ ‘앞내에 살진 고기도 낚’ 는다는 것은 타인의 능력에 대한 화자의 감탄을 드러낸다.
- ④ ‘뒷뎨에 엄긴 약도’ 캔다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 ⑤ ‘노사태평하여 승화귀진’ 한다는 것은 앞으로 남은 인생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드러낸다.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다)는 모두 강호 시가로, 자연에 대한 만족감이 드러나 있으면서도 작가의 상황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 (가)는 사대부 작가가 노년에 벼슬을 내려놓고 낙향하면서 지은 노래이다. 반면 (나)의 작가는 중인 가객으로 사대부의 삶을 표방하였지만 현실적 한계로 입신양명의 꿈이 좌절되며 삶에 대한 고뇌를 지닌 인물이다. 이로 인해 작품에는 자연에서의 흥취를 통해 현실에서 느끼는 위화감을 해소하려는 작가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다)는 작가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벼슬살이 후 낙향한 사대부가 지은 시가로 추정되는데, 이에 작품에는 세속적 가치를 내려놓은 사대부의 유유자적한 삶이 드러나 있다.

- ① (가)에서 ‘전원이 장무’ 하여 ‘아니 가고 어쩔고’ 라고 한 것으로 보아, 오랜 세월 동안 벼슬살이를 했던 작가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 함을 알 수 있군.
- ② (나)에서 ‘내 힘과 내 분으로 어이하여 얻을쏘니’ 라고 한 것으로 보아, 작가가 중인 신분으로서 사대부에 대해 신분상의 위화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나)에서 ‘나도 두고 노니노라’ 라고 한 것으로 보아, 작가가 자연을 현실적 한계에 얽매이지 않는 공간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다)에서 ‘성경현전 헤쳐 놓고 읽기를 파한’ 다고 한 것으로 보아, 작가가 벼슬살이를 하는 동안 가까이했던 학문을 이제는 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다)에서 ‘임고원망하여 임의소요’ 하면서 ‘이같이 즐거움을 무엇으로 대할쏘니’ 라고 한 것으로 보아, 작가가 전원에서 한가롭게 생활하는 것에 만족감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군.

(가) 동쪽 울에 심은 국화 귀한 줄을 누가 아나
봄별을 마다하고 찬 서리에 혼자 피니
어즈버 청고한 내 벗이 다만 너인가 하노라
- 이신의, 「사우가」 중 <제2수>

(나) 거문고 술* 꽃아 놓고 호젓이 낮잠 든 제
 사립문에 개 짖으니 반가운 벗 오는구나
 아이야 점심도 하려니와 외상 탁주 내어라

- 김창업

*술: 거문고나 향비파를 타는 데 쓰는, 단단한 대나무로 만든 채. 술대.

(다) 어화 세상 벗님네야 부귀공명 한을 마소 부귀도 뜬구름이
 요 공명은 풍진(風塵)이라
 백 년도 못 사는 인생으로 구약(求藥)하던 진시황도 여산에
 한 뼤기 푸른 무덤 되어 있고 신선 되려 하던 한무제도 분수(汾
 水)의 가을바람에 백발만 휘날렸다 공도(公道)*라니 백발(白髮)
 이요 못 면할 손 그 길이라
 우리 같은 초로인생 아니 놀고 무엇 하리

- 작자 미상

9. 25001-0237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 (나) 모두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말하기 방식을 통해 시상의 흐름을 전환하고 있다.

② (가), (나) 모두 묻고 답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화자가 처한 부정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③ (가), (나) 모두 화자의 청각적인 인식을 활용하여 공간의 변화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④ (가)와 달리, (나)는 화자가 타인이 한 말을 직접 인용하여 상대방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⑤ (나)와 달리, (가)는 상반된 이미지를 대비하여 대상의 속성에 대한 화자의 취향을 드러내고 있다.

10.

(다)의 화자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거스를 수 없는 운명으로 수용한다.
- ② 긴 세월 속에서 수명의 한계를 인식하여 인간의 유한성을 자각한다.
- ③ 인생을 헛되고 무상한 것으로 여기기에 즐기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④ 인간에게 일어나는 노화 현상에 대해 누구나 겪는 당연한 이치라고 판단한다.
- ⑤ 역사 속 인물들의 행적을 거론하여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그 삶의 방식에 공감한다.

11.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벗’은 사람이 가깝게 여기면서 마음을 공유하는 대상으로 지루함, 외로움을 달랠 수 있거나 인간이 가지고 싶어 하는 속성을 가진 사람, 또는 자연물을 지칭한다. 그런데 시조에 나타난 벗은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발견한 특정 가치를 부각하는 데에 필요한 개인 혹은 불특정 다수, 사전적 벗의 의미가 아닌 사물까지도 광범위하게 포함한다는 점에서 특이성을 보인다. 그리하여 시조에서 벗은 서정적 독백을 넘어,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마치 상대방에게 말을 건네는 것과 같이 입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문학적 장치가 됨으로써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 준다.

- ① (가)의 벗은 자연물을 벗으로 인식한 것으로서, 자연과 동화된 인간의 모습을 담아내어 비현실적 세계를 향한 화자의 동경을 보여 주고 있군.
- ② (나)의 벗은 화자가 친숙하게 여기면서 자신의 지루함을 달래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화자가 마음속으로 만나기를 바라던 대상으로 볼 수 있군.
- ③ (다)의 벗은 불특정한 세상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화자가 자신이 처한 속세의 현실적 삶에서 깨달은 인생의 가치를 전할 대상으로 보고 있군.
- ④ (가)의 벗은 화자가 가지고 싶어 하는 내면적 가치를 지니는 대상으로, (나)의 벗은 화자가 가지고 있는 여유를 공유하고 싶어 하는 대상으로 형상화되고 있군.
- ⑤ (가)의 벗은 인격을 부여한 사물을 지칭하는 방식을 통해, (다)의 벗은 청자로 설정되는 방식을 통해 작가의 사상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게 하는 문학적 장치가 되고 있군.

㉠한 마디도 못 된 풀이 봄 이슬 맞은 후에
있 넓고 줄기 길어 밤낮으로 불어났다
이 은혜 하 땅극하니 갚을 줄을 몰라라
부자> <제1수-

이 임이 먹이시고 이 임이 입히시니
㉡열 번을 죽고 산들 임의 덕을 잊을러나
만일에 대의를 모르면 중놈이나 다르라
군신> <제2수-

두 성이 한데 모여 함께 늙어 죽자 하니
㉢백 년 정호(情好)야 여기에서 더하랴마는
그래도 공경할 줄 모르면 저구 아니 있느냐*
<제3수-부부>

먼저 나니 뒤에 나니 차례야 다를지라도
앞뒤에 달려서 한 젖으로 자라났다
사람이 이 뜻을 모르면 금수만도 못하리
-형제> <제4수

남으로 생긴 것이 이토록 친후(親厚)할사
손잡고 말할 제 어깨만 두드리라
뽕밭이 바닷물 되어도 신(信)을 잊지 말으리라
<제5수-붕우>

당우 멀어지고 한당송이 이었으니*
천지 오래거니 세상 도리 아니 변할런가
그래도 ㉣일곱 구멍* 가졌으니 오류이야 모르라
<제6수>

옷밥이 부족하니 예의 차릴 겨를 없어
가속 당서*를 불관(不關)이 여기느냐*
그래도 보고 들으면 배울 것이 있으리 <제7수>

이웃을 미워하지 마라 이웃 미우면 갈 데 없어
한 고을이 버리고 한 나라가 다 버리리
㉤백 년도 못 살 인생이 그러그러 어떠리
수> <제8

- 박선장, 「오륜가」

*저구 아니 있느냐: 물수리라는 새만도 못하지 않느냐. 『시경』에 나오는 「관저」의 내용처럼 군자와 요조숙녀가 만나 좋은 짝이 되고 금실 좋게 서로 그리워하며 산다면 공경하는 마음도 생길 것이라는 뜻임.
*당우 멀어지고 한당송이 이었으니: 요순시대가 멀어지고 문화와 문물이 번성했던 한·당·송나라의 시대가 이어졌으니.
*일곱 구멍: 눈, 코, 귀, 입.
*가속 당서: 글방이나 서당 등의 교육 기관.
*불관이 여기느냐: 상관이 없다고 여기느냐.

12. 25001-0240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 ‘한’은 풀의 길이가 짧음을 강조함으로써 부모를 향한 자식의 사랑이 크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의 ‘열’은 죽음의 일회성을 부정함으로써 신하의 목숨을 살리는 임금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의 ‘백’은 부부로 살아가는 시간을 강조함으로써 생사를 초월한 부부의 특별한 인연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의 ‘일곱’은 구멍이 뚫린 인체 기관을 환기함으로써 오류의 의미를 새롭게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의 ‘백’은 인간 삶의 유한성을 강조함으로써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에도 길지 않은 인생임을 드러내고 있다.

1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 박선장의 「오륜가」는 <제1수>~<제5수>인 본사와 <제6수>~<제8수> 결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때 본사는 <제3수>를 축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가정 안의 혈육 관계를 A로, 가정 밖의 비혈육 관계를 B로, 부부 관계를 C로 각각 바꾸어서 표시하면, A-B-C-A-B의 대칭 구조로 나타낼 수 있어요. 관계에 따른 대칭 구조뿐만 아니라 표현·형식적 측면에서도 <제3수>를 축으로 하여 ‘a-b-c-b-a’의 대칭 구조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러한 대칭은 작품의 결속성을 강화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어요.

- ① <제1수> ‘부자’와 <제4수> ‘형제’는 가정 안의 혈육 관계이며, <제2수> ‘군신’과 <제5수> ‘붕우’는 가정 밖의 비혈육 관계로 서로 대칭을 이루는군.
- ② <제1수>의 ‘봄 이슬’과 <제4수>의 ‘한 젖’은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서로 주고받는 사랑을 표상하는군.
- ③ <제2수>의 ‘임의 덕’을 잊지 않는 것과 <제5수>의 ‘친후’한 사이는 각각 비혈육 관계인 군신과 붕우 관계를 지탱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는군.
- ④ <제2수>의 ‘대의를 모르’는 상황과 <제4수>의 ‘뜻을 모르’는 상황을 가정하며 다른 대상과 비교하는 대칭 구조를 통해 작품의 결속성을 강화하는군.
- ⑤ <제3수>의 ‘두 성이 한데 모여 함께’하고자 하는 것은 비혈육 관계로 가정을 이루는 부부 관계를 나타내며 서로를 ‘공경’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이어지는군.

14.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수>에서 자식을 ‘풀’에 비유하며 윤리적 실천의 주체로서 깨달아야 할 효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 ② <제5수>에서 ‘뽕밭이 바닷물 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시련을 겪는 상황에서도 친구 간에 믿음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제6수>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당우’에서 ‘한당송’으로 시대가 변하는 것과 대조하여 변하지 않는 오류의 당위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제7수>에서 ‘가숙 당서를 불관이 여기’는 세태를 부정적으로 여기며 ‘보고 들으면 배울 것이 있’다며 학업 수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제8수>에서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이 미칠 영향을 개인적 차원에서 ‘고을’과 ‘나라’로까지 확장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이웃 사랑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가) 본관과 초면이라 서로 인사 다한 후에 본관이 하는 말이

㉔김 교리 이번 유배 죄 없이 오는 줄은
북관 수령 아는 바요 온 백성이 울었으니
조금도 슬퍼 말고 나와 함께 노십시다
악공 기생 다 불러라 오늘부터 놀자꾸나
그러나 이내 몸이 유배 온 사람이라
꽃자리에 손님 대접 기생 풍류 무엇이냐
일일이 물리치고 ㉕혼자 앉아 소일하니
경내의 선비들이 소문 듣고 배우기를 청하며
하나 오고 두셋 오니 육십 명 되는구나
책 끼고 와 배움 청하고 글제 내어 골라 달라 부탁하네
북관의 수령 관장 무장만 보다가
문관의 명성 듣고 한사코 달려드니
내 일을 생각하면 남 가르칠 공부 없어
아무리 사양해도 벗어날 길 전혀 없어
밤낮으로 끼고 앉아 글로 세월 보내도다
고향 생각나면 시를 짓고 심심하면 글 외우니
변방의 외로운 몸이나 시와 술에 마음 붙여
문밖으로 안 나가고 편히 편히 날 보내다
가을바람에 놀라 깨니 변방 산에 서리 왔네
남쪽 하늘 바라보면 기러기 처량하고
북방을 굽어보니 오랑캐 땅이로다
개가죽 상하의는 상놈이 다 입었고
조밥 피밥 기장밥은 주민의 양식이네
㉖본관의 큰 은혜와 주인의 정성으로
실낱같은 이내 목숨 한 달 반을 보존했네

(중략)

이 몸이 이른 곳이 신선의 동굴이라
평생의 인연으로 선계에 자취 남겨
바람에 부친 듯이 이 광경 보는구나
연적봉 지난 후에 선연을 따라가니
㉗연화봉 절바위는 하늘에 솟아 있고
배바위 서책봉은 눈앞에 솟아 있고
생황봉 보살봉은 신선의 동굴이네

매향은 술잔 들고 만장운 한 곡조 부르고
군산월 **얹은 모습** 분명히 꽃이로다
오동나무 거문고에 금실로 줄을 매어
대쪽으로 타는 모습 거동도 곱거니와
가냘픈 손결 끝에 오색이 영롱하다

㉘너의 거동 보고 나니 군명이 엄하여도 반할 뻔하겠구나
미인 앞에 영웅 열사 없단 말은 역사책에도 있느니라
내 마음 단단하나 너한테야 큰소리치라
본 것이 큰 병이요 안 본 것이 약일런가
이천 리 변경에서 단정한 몸으로
귀양살이 잘한 것이 모두 다 네 덕이로다
양금 연주 끝낸 후에 ㉙절집에 내려오니
산승의 음식 보소 정갈하고 향기롭다
이튿날 돌아오니 회상대서 놀던 일이 전생인가 꿈속인가
하늘 끝 나그네가 이럴 줄 알았던가
흥 다하여 돌아와서 수노 불러 분부하되
㉚칠보산 유산 때는 본관이 보냈기에 기생을 데려갔으나
돌아와 생각하니 호사스러워 불안하다

다시는 기생이 못 오도록 지휘하라
선비만 데리고서 시 짓고 술 마시니
청산은 글이 되어 술잔에 떨어지고
녹수는 그림 되어 종이 위에 단청된다
군산월 고운 모습 꿈에서 깬 듯하다

- 김진형, 「북천가」

15. 25001-0243

- ㉔와 ㉕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㉔는 상대의 상황에 공감하는 말이고, ㉕는 자신의 입장에 공감을 요구하는 말이다.
 - ② ㉔는 상대의 잘못을 덮어 주며 이해하는 말이고, ㉕는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변호하는 말이다.
 - ③ ㉔는 상대가 처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말이고, ㉕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말이다.
 - ④ ㉔는 상대를 위로하며 행동을 권유하는 말이고, ㉕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며 하는 말이다.
 - ⑤ ㉔는 상대의 변화를 촉구하며 행동을 명령하는 말이고, ㉕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근거를 들어 방어하는 말이다.

16.

- ㉗~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㉗: 수를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에게 배움을 청하는 선비들이 많아지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㉘: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힘겨운 유배지에서의 생활을 배려를 받으며 이어 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③ ㉙: 대구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가 경탄하는 자연의 경관을 리듬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 ④ ㉚: 감탄형 어미를 사용하여 군산월의 빼어난 거동에도 마음을 뺏기지 않겠다는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㉛: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화자가 대접받은 음식에 대한 만족감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17.

-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A]에 대한 화자의 인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선비로서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 자세에 도움이 되는 값진 경험으로 여긴다.
 - ② 군산월의 배려로 귀양지에서 산수를 유람할 수 있었던 특별한 기회로 여긴다.
 - ③ 본관이 보내 준 기생들과 함께 어우러져 흥겹게 보냈던 아득한 순간으로 여긴다.
 - ④ 엄한 군명으로 인해 큰 병 없이 편안히 귀양살이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여긴다.
 - ⑤ 뛰어난 자연 경관을 즐기면서 벗들과 함께 역사를 회고할 수 있었던 시간으로 여긴다.

[A]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북천가」는 작가가 이조 판서 서기순의 비행을 고발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반대파에 의해 함경도 명천으로 유배된 체험을 다룬 장편 유배 가사이다. 이 작품에 담긴 작가의 두 가지 의식은 풍류에서 오는 흥취와 사대부로서의 체면이다. 유배 생활의 고난과 비애를 그리기보다는 작가가 누리는 여유로운 생활과 기생 군산월과의 애정사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유배 생활을 가볍게 다루는 것에 대한 당시 사대부의 비난을 의식하여 표면적으로 풍류 생활을 거부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한편 「북천가」는 기행 가사의 구성을 보여 주는데, 유배지로 가는 여정에 따라 보거나 들은 경험을 기록하고 이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반응을 나타내는 부분을 통해 잘 드러난다.

- ①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유배 온 사람’으로 인식하며 ‘악공 기생 다’ 부르라고 하는 본관의 말에 대해 ‘기생 풍류 무엇이나’라고 반응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풍류 생활을 거부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군.
- ② 화자가 유배 생활을 하면서 ‘시와 술에 마음 붙’이며 ‘편히 편히 날’을 보내는 것은 유배 생활의 고난과 비애보다는 풍류와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군.
- ③ 화자가 유배지에서 본 모습을 ‘개가죽 상하의는 상놈이 다 입었고 / 조밥 피밥 기장밥은 주민의 양식’이라고 한 것은 여정에 따라 보고 들은 경험을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군.
- ④ 화자가 군산월의 ‘앓은 모습’을 ‘꽃’에 비유하고 수노에게 ‘다시는 기생이 못 오도록’ 분부하며 다른 기생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것은 군산월과의 애정사에 집중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군.
- ⑤ 화자가 칠보산 유람 후에 호사스러움을 경계하며 ‘선비만 데리고서 시 짓고 술’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당시 사대부의 비난을 의식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군.

홍보기도 싫다마는 저 부인(婦人)의 모양 보소
출가(出嫁)한 지 석 달 만에 시집살이 심하다고

친정에 편지하여 시집 흉도 허다(許多)하다
게염스런* 시어머니 암특할사* 시아버지
야유데기 시누이와 엄숙데기 만동서며
요악(妖惡)한 아우 동서 여우 같은 씨앗년*의
거세도다 남노여복(男奴女僕) 들며 나며 흙구덕에
여기저기 사설이요 구석구석 모함이라
남편이나 믿었더니 십벌지목(十伐之木)* 되었어라
시집살이 못 하겠네 간숫병을 기울이고*
치마 쓰고 내단기와 붓짐 싸고 도망질에
오락가락 못 견디어 여승(女僧)이나 따라갈까
들 구경을 하여 볼까 나물이나 뜯어 볼까
㉠긴 장죽(長竹)이 벗님이요 문복(問卜)*하기 소일(消日)이요

결으로 설움이요 속으로 판생각에
반분대(半粉黛)*로 일을 삼고 털 뽑기가 세월이요
시부모가 걱정하면 말대답을 풍덩풍덩
남편이 걱정하면 뒤중그러* 맞넉수*라
들고 나니 초롱꾼*에 팔자나 고쳐 볼까
양반 자랑 모두 하며 색주가(色酒家)*나 하여 볼까

남대문 밖 뺨덕어멈 천성(天性)이 그러한가
배워서 저러한가 본데없이 자랐구나

여기저기 무릎맞춤* 싸움질로 세월이요
나가면은 말전주*요 들면서 음식 공론
제 조상(祖上)은 젓혀 놓고 불공(佛供)하기 위업(爲業)이라
당 소경 푸닥거리 의복가지 다 나가고
㉡남편 모양 불작시면 삼살개 뒀다리라
자식 거동 불작시면 털 벗은 술개미라

옛장수 떡장수는 아이 핑계 거르지 않고
물레 앞 씨아 앞은 선하품 기지개라
이야기책 소일에 음담패설 요기로드
이 집 저 집 이간질로 모함 잡고 똥 먹이며*
인물 초인 떨려 나기* 패(佩)쪼박이 되겠구나*

㉢세간은 줄어지고 걱정만 늘어 가네
치마는 짧아 가고 허리통이 길어 간다
충 없는 헌 짚신에 어린 자식 들쳐 업고
혼인 장사(葬事) 집집마다 음식 추심 일을 삼아
꾼 양식 거울러라* 한번 곡회* 하여 보자
아이 싸움 어른 싸움 가부지죄* 매 맞히고
공연히 성을 내어 무죄한 자식 치기
씨앗을 남을 주고 중매아비 원망이라
㉣머느리를 쫓았으니 아들은 홀아비요
딸자식을 데려오니 남의 집 결판일네
목구멍이 드슈하면 무례무의(無禮無義) 음란이요
두 손뼉을 두드리며 방성대곡 해괴하다
무슨 꼴에 생투기로 머리 싸 드러눕고
㉤간부(姦夫) 달고 달아나다 관비(官婢) 정속* 흐뭇하다

무식한 창생(蒼生)들이 저 거동(舉動)을 자세히 보소
그른 줄을 알았거든 고칠 개(改) 자 힘을 쓰고
옳은 줄로 알량이면 행하기를 위주(爲主)하소
아무리 용렬하나 그름 옳음 모를쏜가

- 작자 미상, 「용부가」

- *게염스런: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 *암특할사: 남을 시기하고 샘을 잘 내는.
- *씨앗년: 남편의 첩을 멸시해서 하는 말.
- *십벌지목: 열 번 찍힌 나무.
- *간숫병을 기울이고: 간수를 먹으려 하며, 즉 자살을 시도하는 행위를 일컬음.
- *문복: 점쟁이에게 길흉(吉凶)을 물음.
- *반분대: 살짝 칠한 옅은 화장.
- *뒤중그러: 생각이나 성질이 바르지 않고 빼뺄어짐.
- *맞넉수: 맞적수. 지지 않고 대꾸하는 것.
- *들고 나니 초롱꾼: 초롱을 들고 나서면 초롱꾼이 된다는 뜻으로, 사람은 어떤 일이고 다 할 수 있다는 말.
- *색주가: 술집.
- *무릎맞춤: 양자 사이의 말이 서로 다를 적에 삼자 앞에서 대질하여 변론하는 것.
- *말전주: 이쪽 말을 저쪽에 전하여 이간질을 하는 것.
- *모함 잡고 똥 먹이며: 피로써 남을 못된 구렁에 들게 함.
- *인물 초인 떨려 나기: 외간 남자를 끌어들었다가 쫓겨나기.
- *패쪼박이 되겠구나: 쪼박을 차는 신세, 즉 거지꼴이 되었다는 의미.
- *거울러라: 거의 되었다는 뜻으로, 곧 떨어지게 되었다는 말.
- *곡회: 친구끼리 모여서 즐겁게 술을 마시는 일.
- *가부지죄: 부인의 잘못으로 남편이 벌을 받게 됨.
- *관비 정속: 죄를 범한 여자를 관비로 소속시키는 것

19. 25001-0047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대상을 의인화하여 친구들과 허송세월을 보내는 인물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가족을 돌보는 일에 무관심한 인물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의미가 대비되는 어휘를 사용하여 인물의 가정 형편이 악화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통사 구조를 반복하며 인물의 행위가 다른 이들에게 야기한 부정적 결과를 드러내고 있다.
 - ⑤ ㉤: 감정을 나타내는 어휘를 사용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에 대한 통쾌함을 드러내고 있다.

20.

-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편지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자신을 시샘하고 빈정거린다.
 - ② 집안의 종들이 자신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트리고 다닌다.
 - ③ 믿었던 남편마저도 더 이상 자신의 편을 들어 주지 않는다.
 - ④ 나이가 어린 아우 동서와 남편의 첩 모두 간사한 사람들이다.
 - ⑤ 내 처지를 아는 여승이 나물 뜯는 것을 핑계로 가출할 것을 권유한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용부가」에 등장하는 인물의 행위를 평가하려고 한다. ㉠~㉥ 중 평가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만을 고른 것은?

< 보 기 >

선생님: 『규곤의측』은 조선 시대 후기에 편찬된 여성 교훈서로, 책의 제목인 ‘규곤의측’은 ‘방문 안의 거동과 법’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이 책에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체제를 유지하고 유교 이념의 실천을 강조하기 위해 부녀자가 지켜야 할 규범들을 23개의 조항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조항의 일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에 대한 규범	가족에 대한 규범	타인에 대한 규범
- 마음잡는 도리 - 음식, 의복에 관한 제도 - 무당, 불교에 대한 경계(㉠)	- 지아비 섬기는 도리 - 친정 부모 대접하는 도리(㉡) - 집안 살림을 일으키는 도리(㉢)	- 손님을 대접하는 도리(㉣) - 아랫사람을 통솔하고 지도하는 도리(㉤)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22.

<보기>를 바탕으로 [A]~[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인물을 형상화한 가사 작품들에서는 작품의 서두와 말미에는 각각 형상화하고자 하는 인물에 대한 소개와 화자의 논평이 제시되는데, 복수의 인물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작품의 중간에 이러한 소개나 논평이 삽입되기도 한다. 이때 논평은 특정 행동을 권하는 당부의 말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부정적 인물을 형상화할 때에는 화자의 논평을 최소화한 채 현실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나열하며 회화화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가사의 교훈적 역할을 표면화하고, 화자와 작품 속 인물과의 거리감을 드러내어 경계(警戒)의 성격과 행동 변화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 ① [C]는 화자가 인물을 소개하는 부분으로, 화자가 소개하는 인물이 두 명이기 때문에 작품의 중간에 삽입된 것이겠군.
- ② [B]와 [D]는 화자가 비판하고자 하는 인물의 행실을 소개하는 부분으로, 화자가 ‘저 부인’과 ‘뽕덕어멈’을 각각 ‘홍보기도 싫’고 나쁜 ‘천성’을 지녔다고 판단하는 현실의 모습을 나열하고 있군.
- ③ [E]는 화자의 논평이 제시된 부분으로, ‘고칠 개 자 힘을 쓰’고 ‘옳은’ 것을 알면 ‘행하기를 위주하’라는 화자가 권하는 행동에 해당하겠군.
- ④ [A]와 [C]에서는 인물을 지칭하며 비판의 대상을 표면화하고, [E]에서는 ‘그른’ 일과 ‘옳은’ 일에 다르게 대처할 것을 당부하며 독자들에게 경계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하고 있군.
- ⑤ [A]와 [E]에서는 ‘저’라는 말을 통해, [C]에서는 ‘그러한가’라는 말을 통해 화자와 작품 속 인물과의 거리감을 드러내며 ‘저 부인’이나 ‘뽕덕어멈’의 행동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군.

철원부터 이리 오며 이따금 살펴보니
산수는 첩첩하고 인가는 드문데
㉠자갈밭이 단단하여 쌍겨리*로 밭을 갈고
주막에 기름 없어 관솔로 불 밝혔는데
방구석에 흙을 발라 굴뚝처럼 만들고서
아래에다 아궁이 내고 불을 빼앗듯 하는구나
갯버들 베어다가 바자처럼 엮어 짜서
채마밭 둘러막아 울타리 삼았고
읍내와 역점 중에 넉넉하게 사는 집은
㉡얕은 청석 너와 쪽으로 지붕을 덮었는데
빠져나온 틈 속으로 하늘이 비친다
아주 깊은 두메산골 풍속이 수수하여
세간살이 집 꾸밈이 투박하고 힘들어 보인다
㉢초사일 저녁때에 먹구름이 끼기에
일제히 출발하여 장오고개 넘어갈 때
길은 굽이지고 돌사다리 험하여서
언덕이 가팔라서 본이비탈이라는데
한 고개 넘어서니 또 한 고개 높구나
그 가운데 큰 내 있고 수십여 간 다리 놓았는데
이쪽은 김성이요 저편은 회양이네
㉣하류 얕은 곳에 거룻배 매어 두고
장마에 다리 떠내려가면 행인을 건네준다네
(중략)

큰 폭포 맞은편의 바위에 늘어앉아
삼천 척 떨어지는 물 건너다 바라보니
석벽 백여 길이 병풍처럼 둘러 있고
허리가 꺾인 곳이 물길이 되었는데
비 온 후 성난 폭포 몇 층을 보태어서
흰 비단을 드리우고 옥기등을 세운 듯이
은하수 한 굽이가 공중에 드리워져
바위 밑 깊은 못에 담아 부어 쪼을 때에
안개가 피어오르면서 흰 눈이 날리니
금강산 폭포 중에 제일 장관 여기로다
㉤한참을 구경하고 금강문에 도로 내려와서
남여 타고 절에 와서 점심을 먹은 후에
만물초 가는 길이 온정을 지난다기에
극락고개 넘어서서 오 리 남짓 가니
주막집 바로 곁에 우물집* 지었기에
문 열고 구경하니 상하탕(上下湯)이 놓였는데
두 군데 똑같이 넓적한 돌로 네모지게 짚고
물빛은 흐릿하고 미지근하다 하네
보슬비가 계속 내려 주막에서 머물고

이십일 일 조반 후에 날 흐리고 안개 덮였는데
만물초 구경하려고 준비하고 내려가니
지로승과 주막 주인 붙들고 만류하길
만물초 가는 길이 왕복 칠십 리요
맑은 날에도 구름 끼면 못 보는데
하물며 비 오는 날은 지척 분간 못 하니
미끄러운 돌사다리 천신만고 올라가서
산 밑만 겨우 보면 분하지 않겠는가
들어 보니 그럴듯하고 일행들도 옳다고 하여
봉래산에 다시 올 약속을 만물초에 남겨 두고
행장을 다시 차려 충석으로 향할 때
금강 내외산을 이곳에서 작별하니
만이천 봉우리가 눈앞에 또렷하다

홍정유, 「동유가」

*쌍겨리: 소 두 마리가 끄는 쟁기.
*우물집: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우물 위에 지붕을 만든 것.

23. 25001-0251

-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동에 따라 만나는 경관을 보고 점차 심화되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여행지에서 경험한 자연의 모습으로부터 인간사에 대한 깨달음을 유추하고 있다.
 - ③ 기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여 여행 계획이 변하게 된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시간의 선후 관계를 중심으로 공간과 관련된 화자의 긍정적 경험을 환기하고 있다.
 - ⑤ 특정 지역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풍속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24.

-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B]와 달리 화자의 공간 이동에 따라 경물의 모습이 구체화되고 있다.
 - ② [A]는 [B]와 달리 관찰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A]는 [B]와 달리 직접 들은 말을 인용하여 화자가 경험한 상황을 실감 나게 전하고 있다.
 - ④ [B]는 [A]와 달리 화자의 경험과 상상을 바탕으로 시·공간적 배경을 묘사하고 있다.
 - ⑤ [B]는 [A]와 달리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화자가 이동한 거리를 사실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5.

윗글의 여정에 나타난 화자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두메산골’에 사는 사람들의 집을 관찰하며 그들의 삶이 힘들어 보인다고 생각한다.
- ② ‘장오고개’를 일행과 함께 넘으며 길이 험준해서 오르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 ③ ‘수십여 간’ 놓인 ‘다리’를 앞에 두고 망설이며 김성과 회양 중에 어디로 갈지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 ④ ‘극락고개’를 넘어 우물집을 구경하고 주막에서 머문 후 만물초를 구경하러 가야겠다고 생각한다.
- ⑤ ‘만물초’를 보러 가는 것을 만류하는 말을 듣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6.

<보기>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동유가」는 일기 형식을 부분적으로 차용하여 금강산을 오가는 여정과 견문을 서술한 기행 가사이다. 일반적인 금강산 기행 가사들이 목적지인 금강산의 승경 완상을 표현하는 것에 집중하는 데 비해, 이 작품은 금강산까지 가는 여정과 견문, 그 과정에서의 일들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구체적인 날짜를 밝히고 머무르는 숙소, 이동한 거리 등을 비롯해 여행과 관련한 크고 작은 일들을 호흡의 완급을 조절하며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한편 작가는 자기가 관찰한 지역민들의 삶의 모습에도 관심을 가지는데, 이에 대해 사람들에게 전해 들은 말이나 자신의 주관적 느낌을 나타내기도 한다.

- ① ㉠: 철원에서부터 이동하는 길에 관찰한 지역민의 농사짓는 모습을 지역의 환경적 특징과 함께 제시하고 있군.
- ② ㉡: 여행 과정에서 관찰한 지역민의 생활과 문화를 설명하며 해당 지역의 주거 문화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드러내고 있군.
- ③ ㉢: 일기와 같이 일행이 출발한 날짜와 시간대를 밝히고 날씨에 따른 일행의 행동을 언급하며 여정을 구체화하고 있군.
- ④ ㉣: 여로에서 마주한 지역에서 다리를 본 사실과 이와 관련하여 전해 들은 말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군.
- ⑤ ㉤: 금강산 폭포를 구경한 후에 화자가 이동한 장소, 거리, 이동 방법에 대한 정보를 중심으로 화자의 이동 과정을 서술하고 있군.

(가) 에헤 / 남산 밑에 남 도령아 서산 밑에 서 처녀야
남 도령 서 처녀 모이는 김에 강원도 금강산 유람 가자
첫닭 울어 밥을 지어 두 해 울어 썩 나서니
이리들 가고 저리들 가고 ㉠큰 산 밑에 닥쳤구나
올라가면서 올고사리 내려오면서 늦개사리
올방돌방*에 사까리나물 쓰고 똬은 돌가지*나물
이력저력 점심때 되어 점심을 먹고서 나물 캐자
저 건너라 저 바위 위에 물도 좋고 경치도 좋은데
저기 가서 점심 먹자 서 처녀 밥을 둘러보니
여우 같은 쌀밥에다 독조기* 보리장을 발라 놓고
남 도령 밥을 끌러나 보니 수박씨 같은 쫄보리밥에
된장 한 술을 붙여 놓고 서로서로 교환하여
점심 식사를 하실 때 이때 마침 어느 뎡고
백년 기약이 완연하네 얼씨구나 좋다 절씨구나 좋네
아니 놀고서 뭣 할 건가

- 작자 미상, 「나물 캐는 노래」

*올방돌방: 둥글둥글. *돌가지: 도라지. *독조기: 조기 한 마리.

(나) 사랑을 찬찬 엮동여 뒤섞어* 지고
㉡태산준령으로 허위허위 넘어갈 제 그 모른 벗님네는 그
만하여 버리고 가라 하건마는
가다가 자질려* 죽을망정 나는 아니 버리리라

- 작자 미상

*뒤섞어: 한 덩어리로 하여. *자질려: 놀려서.

(다) 모시를 이리저리 삼아 두루 삼아 감삼다가*
가다가 한가운데 푹 끊어지거늘 호치단순(皓齒丹脣)*으로
흠빨며 감빨아* 섬섬옥수(纖纖玉手)로 두 끝 마주 잡아 비부쳐*
이으리라 저 모시를
우리 입 사랑 그쳐 갈 제 저 모시같이 이으리라

- 작자 미상

*감삼다가: 감아서 삼다가. ‘삼다’는 삼이나 모시 따위의 섬유를 가늘게
찢어서 그 끝을 맞대고 비벼 꼬아 잇는 것.
*호치단순: 하얀 치아와 붉은 입술. *흠빨며 감빨아: 흠뻑 빨며 이로
감아 빨아.
*비부쳐: 비벼서.

27. 25001-0055

(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역설적 상황 제시를 통해 자연의 섭리에 반하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② 영탄적 표현을 통해 바라보는 대상에 대한 경외의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③ 열거의 방식을 활용하여 특정 상황에 놓인 대상들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④ 사물을 인격화하는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비정상적인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⑤ 구체적인 장소를 제시함으로써 시적 상황을 현실감 있게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28.

(나)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노인’은 글쓴이가 관찰하는 인물로서 손주들을 데리고 병든 화단을 정성 들여 보살피고 있다.

② ‘노인’은 화단에 물을 주거나 화단 곁에 머물 때 자신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말라 가는 화단의 식물에 대해 속상해하였다.

③ ‘노인’은 서화를 좋아하고 화초 가꾸는 것을 일로 삼는 이로서 가끔 사람들에게 자신의 화단을 내보이기도 하였다.

④ 글쓴이는 ‘노인’의 화단을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재주를 끝내 칭찬하지 못한 것을 두고 내내 후회하였다.

⑤ 글쓴이는 ‘노인’이 가꾸는 ‘장미’나 ‘복숭아나무’들이 ‘노인’이 공을 들인 것이거나 노인의 손길이 닿은 것들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2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과거에 대한 화자의 반성을 표상하는 자연물이며, ㉡는 현재에 대한 글쓴이의 만족감을 상징하는 자연물이다.

② ㉠은 화자가 안타까운 감정으로 응시하는 자연물이며, ㉡는 글쓴이가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자연물이다.

③ ㉠은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됨을 나타내는 자연물이며, ㉡는 글쓴이와 다른 인물들 간의 표면적 갈등을 점층적으로 심화하는 자연물이다.

④ ㉠은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풍경의 고요함을 나타내는 자연물이며, ㉡는 글쓴이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자연물이다.

⑤ ㉠은 화자로 하여금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자연물이며, ㉡는 글쓴이로 하여금 자신의 세속적 욕망을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자연물이다.

30.

[A]와 [B]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관련된 성현들의 말을 두루 인용함으로써 논지 전개의 정당성을 점검하고 있다.

② 결과보다 다방면에 걸친 원인들만을 언급하여 특정 현상의 발생 배경을 부각하고 있다.

③ 글쓴이의 입장에 반하는 견해를 언급한 후 그러한 견해를 뒷받침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④ 글쓴이가 글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요지와 그와 관련된 근거를 함께 언급하고 있다.

⑤ 소재를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들을 순차적으로 제시하여 대상의 특성을 다각도로 드러내고 있다.

3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병균’이 의미하는 바를 통해 안식을 누려야 하는 ‘밤’이라는 시간도 물리쳐야 하는 것으로 취급받는 세태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 인식의 대상을 ‘겨울나무’에서 ‘사람들’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문제 상황이 인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부각하고 있다.
- ③ ㉢: 자연물에 가해지는 인위적 손길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석류나무’의 형상이 본래의 모습과는 멀어지게 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④ ㉣: ‘공숙단’을 비판한 노래를 제시함으로써 과도하고 포악하게 살상을 저지르는 것에 대한 경계를 나타내고 있다.
- ⑤ ㉣: ‘불교의 책’에 실린 ‘계율’을 거론함으로써 살생을 하지 않는 것이 만물을 대하는 군자의 선한 도리가 아닐 수도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32.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인간의 편리를 위해 자연의 본성을 거스를 수 있다는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은 인간을 위한 도구로 자연을 대한다. 이에 반해 생태 중심주의 자연관은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생태계의 모든 존재는 본래적 가치를 존중받아야 한다고 본다. 특히 자연을 대하는 데 있어 경제적 측면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윤리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주장한다. 자연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가)~(다)에 제시되어 있는데, (가)에는 생태계를 위협하는 문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나타나 있으며, (나)에는 인간을 위한 대상으로 자연을 대하는 인식에 대한 경계가 나타난다. (다)는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인간과 만물에 대하는 바른 이치를 밝히고 있는 글이다. 인간을 세상과 사유의 중심에 두되, 만물을 윤리적으로 대하는 것과 같은, 자연과의 조화도 필요하다고 본다.

- ① (가)에서 ‘겨울이 교란당하고 있는’ 상황은 자연의 본성을 거스른 채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자연을 이용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겠군.
- ② (나)에서 ‘불구요 기형이요 재변이라 안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물을 인간의 즐거움을 위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다)에서 ‘사람과 만물은 하늘과 땅 사이에 함께 살고 있’다고 보는 것은,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간주하는 생태 중심주의 관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다)에서 ‘다만 그 적당한 정도를 짐작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고려해야 하는 것과 같이, 자연과의 조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포하는 것이겠군.
- ⑤ (다)에서 ‘참혹하기 그지없는 상황에서 그저 ‘살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하는 것은, 자연을 이용하는 데 있어 경제적 측면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지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겠군.<보기>를 바탕으로 (가)~

33.

(다)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어떤 대상을 그와 유사성을 지닌 대상을 통해 이해하거나 표현했다면 은유적 사고를 한 것이다. 표현법으로서 은유와 직유는 모두, 은유적 사고의 결과이다. 은유적 사고는 추상적 개념과 같이, 표현하기 어렵거나 이해하기 힘든 대상을 구체적 사물에 기대어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한다. 한편 어떤 대상을 그와 인접성을 갖는 사물로 지시한다면 환유적 사고를 한 것이다. 가령 “주전자가 끓는다.”라는 말은 ‘주전자 속 물이 끓는다.’는 뜻의 환유적 표현으로, 여기서 ‘주전자’는 ‘(주전자 속) 물’과 가까이 존재하는 사물이다. 환유는 언어의 경제성을 높이거나 언어유희를 구현하려는 의도에서 사용될 때가 많다.

- ① (가)에서 ‘첫닭 울어’라는 말로 이른 아침을 나타내고 (나)에서 ‘그만하여 버리고 가라’라는 말로 임과의 사랑에 대한 화자의 체념을 드러낸 것은, (가)와 (나)의 화자가 환유적 사고를 한 결과이다.
- ② (가)에서 ‘백년 기약이 완연하네’라는 말로 자연에서 느끼는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나)에서 ‘엷동여 뒤섞어 지고’라는 말로 임과의 사랑을 나타낸 것은, (가)와 (나)의 화자가 은유적 사고를 한 결과이다.
- ③ (가)에서 ‘된장 한 술을 붙여 놓고’라는 말로 남녀 간 관계를 드러내고 (다)에서 ‘한가운데 뚝 끊어지거늘’이라는 말로 임과의 이별을 나타낸 것은, (가)와 (다)의 화자가 은유적 사고를 한 결과이다.
- ④ (나)에서 ‘그 모른 벗님네’라는 말로 임에 대한 화자의 회의적 태도를 드러내고 (다)에서 ‘호치단순으로 흠뻑며 감빨아’라는 말로 모시 삼는 여성의 모습을 나타낸 것은, (나)와 (다)의 화자가 환유적 사고를 한 결과이다.
- ⑤ (나)에서 ‘가다가 자질러 죽을’이라는 말로 임과의 사랑이 갖는 성격을 나타내고 (다)에서 ‘저 모시같이 이르리라’라는 말로 임과의 관계에 대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 것은, (나)와 (다)의 화자가 은유적 사고를 한 결과이다.

34.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생계를 위한 노동의 공간이다.
- ② ㉠과 ㉡은 미래의 삶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다.
- ③ ㉠은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은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심화되는 공간이다.
- ④ ㉠은 인정을 나누며 유희를 즐기는 공간이며, ㉡은 가상의 상황 속에서 설정한 고난의 공간이다.
- ⑤ ㉠은 경치를 감상하며 흥취를 느끼는 공간이며, ㉡은 자연물을 통해 삶의 깨달음을 얻는 공간이다.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가)는 나물 캐기라는 노동을 소재로 한 노동요이다. 노동요의 노랫말은 노동의 대상이나 특성과 관련된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실무적 성격을 띤 것도 있고, 다양한 표현 기법을 사용하여 장면을 흥미롭게 제시하거나 이성에 대한 관심, 연애 감정을 소재로 삼아 흥미를 유발하는 놀이적 성격을 띤 것도 있다.

- ① ‘남산 밑에 남 도령’, ‘서산 밑에 서 처녀’ 라고 대상 인물을 지칭하는 것에서, 말소리의 유사성에 착안한 언어유희를 사용해 장면을 해학적으로 표현하는 노랫말의 놀이적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군.
- ② ‘올라가면서 올고사리’, ‘쓰고 뺏은 돌가지나물’ 을 언급하면서 나물 캐기의 대상이 되는 사물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에서, 노동과 관련한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노랫말의 실무적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군.
- ③ ‘늦개사리’, ‘사까리나물’ 처럼 나물 캐기의 대상이 되는 사물의 종류를 나열하는 것에서, 노동과 관련된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노랫말의 실무적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군.
- ④ ‘둘러보’ 는 ‘서 처녀 밥’ 과 ‘끌러나 보’ 는 ‘남 도령 밥’ 을 차례로 묘사하여 서로 뚜렷이 대비되도록 하는 것에서, 대구와 대조를 활용해 장면을 흥미롭게 제시하는 노랫말의 놀이적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군.
- ⑤ ‘여우 같은 쌀밥’, ‘수박씨 같은 콩보리밥’ 이라고 점심밥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에서, 비유를 활용해 장면을 흥미롭게 제시하는 노랫말의 놀이적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군.

(가)

만고영웅 호걸들아 **초한승부**(楚漢勝負) 들어 보소
절인지용(絶人之勇) 부질없고 순민심(順民心)이 으뜸이라

한패공*의 **백만대병** 구리산*하(下) 십면매복(十面埋伏)
대진(大陣)을 둘러치고 **초패왕***을 잡으랴 제
천하병마도원수(天下兵馬都元帥)는 **표모결식**(漂母乞食)* **한신**
이라

장대에 높이 앉아 천병만마 호령할 제
오강(烏江)은 일천 리요 팽성(彭城)은 오백 리라
거리거리 북병이요 두루두루 **매복**이라
간계(奸計) 많은 이좌거는 패왕을 유인하고
산(算) 잘 놓는 장자방은 계명산 추야월(秋夜月)에
옥통소를 슬피 불어 **팔천제자** 해산(解散)할 제*
때는 마침 어느 때뇨 구추삼경(九秋三更) 깊은 밤에
하늘이 높고 달 밝은데 **외기러기 슬피** 울어
객(客)의 수심(愁心)을 돋워 주고

변방만리 사지중(死地中)에 잠 못 드는 저 군사야
너의 패왕 역진(力盡)하여 장중(帳中)에 죽을 테라

호생오사(好生惡死) 하는 마음 사람마다 있건마는
너희는 어이하야 죽길 저리 즐기느냐
철갑을 고쳐 입고 날랜 칼을 빼어 드니
천금같이 중한 몸이 전장검혼(戰場劍魂)이 되겠구나
오읍(嗚泣)하여* 나오면서 신세자탄(身勢自嘆) 하는 말이
내 평생 원하기를 금고(金鼓)를 울리면서
강동(江東)으로 가겠더니 불행히 패망하니
어이 낯을 들고 부모님을 다시 뵈며 초강(楚江) 백성 어이
보리

전전반측(輾轉反側) 생각하니 팔년풍진(八年風塵) 다 지나고*
적막사창(寂寞紗窓) 빈방 안에 너의 부모 장탄수심(長嘆愁心)
어느 누구라 알아주리
은하수 오작교는 일 년 일차 보건마는
너희는 어이하야 좋은 연분을 못 보느냐
초진중(楚陳中) **장졸**들아 고향 소식 들어 보소
남곡녹초(南谷綠草) 몇 번이며 **고당명경**(高堂明鏡)* **부모님**은
의문(倚門)하여 바라보며 **독수공방** 처자들은
한산낙목(寒山落木) 찬바람에 새옷 지어 넣어 두고
날마다 기다릴 제 허구한 긴긴날에
이마 우에다 손을 얹고 뒤편에 올라 바라다가 망부석이 되겠구나

집이라고 들어가니 **어린 자식** 철없이
젖 달라 젖어 울고 **칠난 자식** 애비 불러
밤낮없이 슬피 우니 어미 간장이 다 썩는구나
㉠**남산하**(南山下)에 **장**(長)**찬 밭**은 어느 **장부** 갈아 주며
이웃집에 빛은 술은 누구를 대하여 권할손가
첨전고후(瞻前顧後)* 바라보니 구리산이 적병이라
한왕이 관후(寬厚)하사 불살향군(不殺降軍) 하오리라
가련하다 **초패왕** 은 어디로만 갈거나

- 작자 미상, 「초한가」

*한패공: 훗날 한나라 고조가 되는 유방.
*구리산: 중국 장쑤성에 있는 산 이름. 구의산의 오기임.
*초패왕: 초나라 병사들을 이끌던 항우.
*표모결식: 한신이 젊을 때 매우 가난하여 냇가에서 빨래 일을 하던 아낙
네에게 밥을 얻어먹었다는 고사.
*장자방은 ~ 해산할 제: 장자방이 옥통소를 불며 항복한 병사들에게 초나
라 노래를 부르게 하여, 항우 군대의 사기를 꺾었다는 고사, ‘사면초
가’를 풀이한 구절임.
*오읍하여: 목이 메어 슬프게 울며. ‘오읍’은 가물 때 까마귀가 탄식하
면서 목이 메어 우는 울음을 뜻함.
*전전반측 ~ 다 지나고: 이리저리 구르며 잠 못 들어 생각하니 팔 년 세월
전쟁터에서 다 보내고.
*고당명경: 이백의 「장진주」에 나오는 구절임. ‘옛집에 있는 맑은 거
울’을 뜻하며, 거울에 백발을 비추어 보는 늙으신 부모님을 떠올리게
함.
*첨전고후: 앞을 보고 뒤를 돌아봐도.

(나) **한잔 먹새그려** 또 **한잔 먹새그려** **꽃 꺾어 산 놓고** **무진무진** **먹새그려**

이 몸 **죽은 후면** 지게 우해 거적 더퍼 주리혀 매여 가나
유소보장*의 **만인**이 우리네나 어육새 속새 덩가나무 백양 숲에
가기곳 가면 ㉡**누른 해 흰 달 가랑비, 붉은 눈, 쇼소리바람** 불
제 **뉘 한잔 먹자** **하고**

하물며 **무덤 위에 잔나비 휘파람** 불 제 뉘우친들 엇더리.
- 정철, 「장진주사」

*유소보장: 술이 달린 비단 장막. 주로 ‘상여’ 위에 씌.

36. 25001-0058

[A]~[C]의 화자나 청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에서 화자는 청자를 ‘만고영웅 호걸들’로 추켜올리면서, ‘순민심이 으뜸’이라는 화자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② [B]에서 화자는 ‘잠 못 드는 저 군사’를 청자로 삼아, ‘초패왕’과 함께하다가 위기에 처한 청자의 상황을 환기하고 있다.
③ [C]에서 화자는 ‘초강 백성’들을 청자로 삼아, 청자의 부모님을 ‘낯을 들고’ 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④ [A]의 화자와 [B]의 화자는 ‘초한’ 진영에 속해 있지 않은 인물이지만, ‘초패왕’의 처지와 관련지어 ‘초한승부’의 결과를 드러내고 있다.
⑤ [C]의 화자는 ‘초패왕’이나 그의 부하 장수로,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상황과 실패했을 때의 상황을 대비적으로 드러내면서 자신의 심정을 밝히고 있다.

37.

(가)에 제시된 시적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패공의 백만대병’은 초패왕을 잡으려고 ‘거리거리 북병’이 되어 ‘두루두루 매복’을 한 상황이군.
- ② ‘표모결식 한신’, ‘간계 많은 이좌거’, ‘산 잘 놓는 장자방’은 ‘초한승부’에서 이기기 위한 포석을 깔고 있군.
- ③ ‘옥통소를 슬피’ 부는 소리와 ‘외기러기 슬피’ 우는 소리는 ‘팔천제자’들의 수심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군.
- ④ ‘고당명경 부모님’과 ‘독수공방 처자들’은 전쟁터에 나간 ‘초진중 장졸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며 기다리고 있군.
- ⑤ ‘어린 자식’과 ‘철난 자식’이 굶주리며 불러 대는 모습은 그것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애비’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군.

38.

<보기>와 관련지어 (가)의 초패왕과 (나)의 이 몸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죽음’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사건이며 인간은 언젠가 자신이 죽어서 없어진다는 것을 자각하는 존재이다. 인간은 이것을 인식하고 있기에 죽음에 대해 불안과 공포를 지닐 수밖에 없다. 살아있는 존재로서 인간은 ‘죽음에 대한 자각’과 ‘계속 살고자 하는 바람’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겪게 된다. 하지만 실존주의자들은 ‘죽음’을 부정적으로만 인식하지는 않는다. ‘죽음’이 ‘삶’의 시간을 제한하기 때문에 오히려 ‘삶’에 의미가 생긴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들에 따르면, 죽음의 불가피성과 삶의 유한성을 인식한 인간이야말로 보다 진지하게 ‘지금-여기’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 ① (가)의 ‘초패왕’은 한패공에게 패배하여 쫓기고 있고 (나)의 ‘이 몸’은 ‘꽃 꺾어 산 놓고 무진무진’ 술을 마시고 있는데, 이들의 상황은 자신 또한 언젠가 죽어서 없어진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기회가 되고 있군.
- ② (가)의 ‘초패왕’은 평생의 원을 이루지 못한 것을 한탄하고 있고 (나)의 ‘이 몸’은 자신이 죽은 후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 상황을 염려하고 있는데, ‘초패왕’의 한탄과 ‘이 몸’의 염려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투영된 것이라 할 수 있군.
- ③ (가)의 ‘초패왕’은 패망을 예견하면서도 죽을 각오로 싸우려 하고 있고 (나)의 ‘이 몸’은 ‘한 잔 먹새그려’를 반복하며 술을 권하고 있는데, 이들의 행위를 통해 삶의 유한성을 인식한 인간이 ‘지금-여기’에 대응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군.
- ④ (가)의 ‘초패왕’은 행복할 생각을 버리고 끝까지 저항하고 있고 (나)의 ‘이 몸’은 죽은 후에도 술을 마시고 싶은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데, ‘초패왕’의 저항이 죽음의 불가피성을 수용한 것이라면, ‘이 몸’의 욕망은 죽음의 불가피성을 넘어서려 한 것이군.
- ⑤ (가)의 ‘초패왕’은 어디로 갈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 (나)의 ‘이 몸’은 자신의 ‘무덤 위에 잔나비 휘파람’ 부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데, ‘초패왕’의 고민이 계속 살고자 하는 바람이 드러난 것이라면, ‘이 몸’의 상상은 죽음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군.

39.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 ‘어느 장부’가 돌아온 후에 이웃집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면, ㉡은 ‘이 몸 죽은 후’에 ‘만인’이 함께 모여 술을 권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 ② ㉠이 이웃집에서 ‘빛은 술’을 함께 마실 사람이 없어진 상황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면, ㉡은 술을 함께 먹자고 찾아올 ‘뉘’가 없는 상황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이 ‘남산하에 장찬 밭’을 갈아 줄 ‘장부’가 떠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면, ㉡은 ‘이 몸 죽은 후’에 술을 담글 사람이 없어 함께 술을 마시지 못하는 아쉬움을 고백하고 있다.
- ④ ㉠이 전쟁에서 살아 돌아올 ‘누구’를 위해 미리 술을 빚어 놓는 이웃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면, ㉡은 ‘이 몸’의 무덤을 찾아와 술을 마시자고 권할 친구들의 우정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이 ‘장찬 밭’을 갈지 못해 술을 만들지 못하는 전란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은 ‘가랑비, 굵은 눈, 쇼소리 바람’으로 인해 술자리를 마련하기 힘든 무덤 주위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 동쪽의 바다에는 큰 고래 있고
서쪽의 국경에는 뗏돼지 있네
강목에는 패잔병만 울고 있으며
해안에는 군센 보루 전혀 없구나
조정에선 좋은 계책 아니 세우나
몸보신만 꾀한다면 대장부이라
말 잘 보는 한풍자*가 다시 안 나니
절영마*는 부질없이 귀가 처졌네
누가 알리, 배웃 입은 이 사람이
웅대한 뜻 하루 천리 달리는 줄을

- 임제, 「잠령민정」

*한풍자: 룡 홀한 말을 감정하는 전설 속의 인물.
*절영마: 조조가 탔다는 훌륭한 말로, 여기에서는 인재를 뜻함.

(나) 학문을 후리치고 반무(反武)*를 하온 뜻은
삼척검 둘러메고 진심보국 하려더니
한 일도 하움이 없으니 눈물겨워하노라 <제1수>

나라에 못 잇을 것은 예뻐에 전혀 없다
의관문물을 이대도록 더럽히고
이 원수 못내 갚을까 칼만 갈고 있노라 <제3수>

도적 오다 뉘 막으리 아니 와서 알리로다
삼백이십 주*에 누구누구 힘써 할꼬
아무리 애고애고 한들 이 인심을 어이하리 <제5수>

배 나아 공부* 대답 쌀 찢어 요역 대답
옷 벗은 적자(赤子)*들이 배고파 설위하네
원컨대 이 뜻 알으사 선혜 고루 하소서 <제11수>

공명과 부귀란 여사로 헤어 두고
낭묘상 대신네 진심국사 하시거나
이렇성저렇성 하다가 나중 어이 하실꼬 <제12수>

이라 다 옳으면 제라 다 그르랴
두 편이 같아서 이 싸움 아니 마네
성군이 준척이 되시면 절로 말까 하노라 <제19수>

- 이덕일, 「우국가」

*반무: 문관이 무관이 됨. *삼백이십 주: 나라를 뜻함.
*공부: 세금을 냄. *적자: 자식. 백성을 뜻함.

40. 25001-0062

(가)와 (나)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의 ‘큰 고래’와 (나)의 ‘적자들’은 모두 화자가 동정심을 갖고 바라보는 대상이다.

② (가)의 ‘패잔병’은 화자의 비애감을, (나)의 ‘의관문물’은 화자의 분노감을 유발하는 대상이다.

③ (가)의 ‘대장부’는 화자의 기대감이 반영된, (나)의 ‘두 편’은 화자의 부러움을 자아내는 대상이다.

④ (가)의 ‘조정’은 화자가 인식 변화를 촉구하는, (나)의 ‘대신네’는 화자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대상이다.

⑤ (가)의 ‘배웃’과 (나)의 ‘배’는 모두 은거하는 화자의 상황을 보여 주는 대상이다.

41.

(나)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제1수>의 초장의 정적인 분위기는 중장에서 동적인 분위기로 전환된다.

② <제5수>의 중장에는 화자의 의문이 나타나고 종장에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나타난다.

③ <제11수>의 초장에 나타난 장면은 중장의 장면과 인과 관계로 이어진다.

④ <제12수>의 초장과 중장에는 인물의 과거 행위가 순차적으로 나열된다.

⑤ <제19수>의 초장에서 인물에 대한 화자의 관찰은 종장에서 자신에 대한 성찰로 이어진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우국의 마음을 담은 시가에는 나라의 위태로운 현실에 대한 작가의 인식이 드러나 있다. 이러한 작품에서 작가는 나라의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안위만을 살피는 위정자에 대해 비판과 권계의 뜻을 드러내는 한편 국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이들이 해야 할 역할을 제시하기도 한다. 또한 작가는 훌륭한 인재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을 들어 인재 등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비판하거나,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자신의 포부를 드러내기도 하는데 이때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출하기도 한다.

① (가)의 ‘말 잘 보는 한 풍자가 다시 안’나 ‘절영마는 부질없이 귀가 처졌’다는 것에는 훌륭한 인재를 등용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작가의 인식이 드러나 있다.

② (가)의 ‘웅대한 뜻 하루 천리 달리는 줄’을 ‘누가 알리’라고 하는 것에는 나라를 위해 애쓰고자 하는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상황에 답답함을 느끼는 작가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③ (나)의 ‘삼척검 둘러메고 진심보국’하려 하지만 ‘한 일도 하움이 없’다는 것에는 자신의 안위만을 살피는 위정자를 비판하는 작가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④ (나)의 ‘이 싸움’을 ‘성군이 준척이 되시면 절로 말까’한다는 것에는 어지러운 나라의 상황을 극복하는 데 있어 군주의 역할을 중시하는 작가의 인식이 드러나 있다.

⑤ (가)의 ‘해안’에 ‘군센 보루 전혀 없’다는 것과, (나)의 ‘도적 오다 뉘 막으리’에는 모두 나라의 위태로운 현실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이 드러나 있다.